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3년도표어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 생활지침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의 고난에 동참하는교회
날마다 새로와지는 교회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제3회 교회학교 졸업식

- 오늘 각 부서별로 -

우리 교회에는 11개의 교회학교가 있어 모든 성도가 천국시민의 삶을 올바로 영위해 가도록 교육하고 있다. 오늘은 취학 전 아동을 교육하는 탁아부와 유치부를 비롯하여 학령에 의해 구분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각 부서별로 졸업식을 갖는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일에 헌신케 하려는 우리 교회 교육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교육이념 (천국시민 생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천국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교육목적(천국시민양성)

1. 거듭난 인간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교육목표

천국시민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교육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함을 고백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교회, 인간, 가정, 이웃, 역사와 우주, 사회와 국가, 직업, 재물 등 그리고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기 위한 교육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회학교 신앙고백

첫째, 우리는 신구약 66권이 영감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다.

둘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셋째,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과 인성, 동정녀 탄생, 대속적 죽음, 육체적 부활, 승천, 그리고 그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귀함, 전적 타락, 중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는다.

다섯째,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시며, 중생시키시며, 내주하시며, 성화하시는 사역과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며, 세상에서 복음을 효과있게 증거케 하시며 책임있는 봉사를 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여섯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온 인류를 영생의 부활 또는 영벌의 부활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

일곱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도성과 거룩성, 보편성과 하나됨을 믿으며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은 예배, 교육, 선교, 성도의 교제, 기도, 구제와 봉사임을 믿는다.

여덟째, 우리는 성경의 교훈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람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것이 교회의 책임임을 믿는다.

송구영신 예배

-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송구영신 예배는 일년간 교회 프로그램 중 그 어느 행사보다 엄숙하고 뜻이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 왔다.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12월 31일(금) 오후 9시부터 교회학교가 주관이 되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뒤 11시가 되면 예배실로 입장하여 참회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게 된다. 0시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는 완전 소등을 하고 온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해에 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첫 시간을 찬송으로 시작한다.

신년 예배

-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새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면서 I, II, III 예배 시에 신년 예배를 드린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며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예식도 거행된다. 성찬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기도도 준비한다.

다음 주일 공동의회

다음 주일 III예배 후에는 5, 6층 예배실에서 공동의회를 연다. 주요 안건은 1993년도 결산 승인과 1994년도 수입, 지출 예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것이다. 우리 교회 세례교인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1994 청지기 수련회 일정

모든 것의 소유권과 사용권, 회수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일꾼의 바른 자세와 헌신을 다짐하는 청지기 수련회가 새해에도 개최된다.

1월 2일 저녁 5시에 이종윤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헌신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는 94 청지기 수련회의 주요 일정과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직 / 1월 3일(월) 새벽 5시 - 6시 30분 「제직과 봉사」
- 교구일꾼 / 1월 4일(화) 새벽 5시 - 6시 30분 「교구일꾼의 역할과 임무」
- 권사 / 5일(수) 수요일 II예배 후 「권사와 교회」
- 교사 / 6일(목) 새벽 5시 - 6시 30분 「교사와 교육」
- 찬양대 / 7일(금) 새벽 5시 - 6시 30분 「찬양과 예배」
- 전도회 임원 / 8일(토) 새벽 5시 - 6시 30분 「임원의 역할과 임무」
- 장로 / 10일(월)

창세기강해

가인의 저주

(창세기 4장 6 - 15절)



이 중 윤

(목사·당회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낮을 보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창세기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은 자는 사단 이었고(3:14), 그 다음에는 땅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도 축복이 끊어져 죽음을 맛보아야하는 자리 에로 떨어졌지만 인간으로서 최초의 저주를 받은 것은 가인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4:11) 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상한 것은 살인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 때에 저주받았던 그 땅이 가인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결과는 땅에서 유리하며, 안식이 없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살인자에게 주어진 형벌이요 저주의 벌이었습니다. 가인은 마땅히 이 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인에게 손을 못 대게 할 것이라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1.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인은 분명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그 자리에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땅의 저주를 받기는 하였으나 생명은 연장시키셨습니다. 구약에는 죽임을 당할 자가 살

인자를 포함해서 크게 18가지의 경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① 살인자 (출21:12 ~ 15, 20; 22:2 ~ 3; 레20:2; 24:17, 21; 민35:11 ~ 21, 30; 신19:11 ~ 13)
- ② 임산부를 다쳐서 낙태케한 자 (출21:22 ~ 25)
- ③ 가축을 소홀히 단속하여 다른 짐승이나 사람을 해쳐서 죽게 만든 자 (출21:28 ~ 30)
- ④ 인질범 (출21:16)
- ⑤ 결혼한 여자에게 강간한 자 (신22:25 ~ 29)
- ⑥ 결혼 전 음행한 자 (신22:13 ~ 21; 레21:9)
- ⑦ 간음을 행한 자 (레20:10; 신22:22 ~ 24; 민5:12 ~ 30)
- ⑧ 근친상간한 자 (레20:11, 12, 14)
- ⑨ 동성연애자 (레20:13)
- ⑩ 짐승과 교합한 자 (레20:15; 출22:19)
- ⑪ 부모를 구타한 자 (출21:15)
- ⑫ 부모를 저주한 자 (출21:17)
- ⑬ 부모에게 패역한 일을 행하고 완악하게 덤벼든 자 (신21:18 ~ 21)
- ⑭ 무당 (출22:18; 레20:27)
- ⑮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레24:10 ~ 16)
- ⑯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자 (신13:1 ~ 16; 18:20)
- 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거역하는 자

(신17:12)

⑱ 위증자 (신19:16 ~ 19)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인은 사형감인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못 죽이신 것이 아니고 그 크신 사랑으로 참고 또 참으시며 죄를 할 수 있는 한 것지 않도록 하시어 지극히 적은 부분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은 가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귀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 가인의 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범한 죄보다 훨씬 가벼운 벌을 주시는데 가인은 그것이 자기가 지은 죄보다 더 무겁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4:13)라고 토로합니다. 가인은 죽어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네게 저주를 하고 열매를 맺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억울하다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축소하면서 용서받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니...”(15절). 그 당시에 가인을 죽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까지도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가인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값대로 처치하지 않으시고 행여나 이 밤에라도 돌아올까 문 열어놓고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가인의 길을 좇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가인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의 길은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해가 오게 됩니다. 그 길은 시기, 미움, 원망, 자기 변명의 길이고 자기의 죄를 모르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으면 뿔터인데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시기심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 살인하고 원망하는 무서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 받은 가인은 지극히 적은 저주를 받았음에도 계속 원망하고 투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원망과 시비는 사라지고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나의 갈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러시아 선교보고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이 종 윤 목사

5박 6일간의 선교여행은

“하나님께서 이기셨구나”라는 결론과 함께

막을 내렸다.

지나간 군화의 발자국에 담겨진

빗물에 튀긴 흙탕물이

역사의 현장에서 짜증스럽고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어쩔수 없이 한번은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에

지금의 러시아인들을

촉은한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12월 13일(월)

비행기 사정으로 일본을 거쳐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기까지 12시간을 공중에 떠서 의자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일행은 약간의 컴컴한 터미널을 빠져 나왔다. 그곳이 모스크바의 귀빈실이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의 초라한 웅점실에서 우리를 마중나온 구즈네 쏘스 대령과 김바울 선교사 내외부의 영접을 받으면서도 아직은 우리가 모스크바에 왔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였다.

눈 내리는 포도 위를 질주하는 차량 속에서 약간의 스릴을 느끼면서 동구라파의 어느 도시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어찌면 모험과 같은 모스크바의 야경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여장을 풀 겨를도 없이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모스크바 국제환경정치대학의 총장(Rector) 일행이었다.

저들은 이 대학에 「종교연구소(또는 종교학과)」를 개설하여 2500명의 모든 재학생이 종교과목을 이수케 하고 러시아의 종교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영적 갱신운동을 일으키게 하며, 특별히 군인들에게 가서 종교를 심어 줄 군목훈련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 대학은 설립된지 2년 밖에 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는 소위 시립대학의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종교학과의 신설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 했다. 더욱이 러시아 정교회의 동의를 얻었고 국방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동의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종교,

특히 신학의 불모지와 같은 러시아에서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교수 채용 등 문제가 많지만 한국교회의 지원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시해 왔다.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가 되도록 토의를 했지만 오늘은 결론을 얻기보다는 의사 타진으로 일단 회의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왔다.

12월 14일(화)

러시아에서의 첫 아침이다. 호텔 창문으로 내려다보이는 도로에는 차량들이 달리고 있지만 밤새도록 내리는 눈과는 관계없이 기온은 영하 1도로 이곳 기온 치고는 온화한 날씨다. 서울에서 떠날 때에 마치 강추위에 얼어붙은 동태라도 될까보아 평소에 입지않던 두꺼운 내의와 외투를 입고 온 것이 우리의 어깨를 누를 뿐 별로 도움은 되지 않았다. 오정수 장로님은 바바리 코트 바람으로 질척이는 거리를 다녔고 박철훈 장로님은 자기 체중보다 무거울 듯한 가죽 코트를 입고 멋을 부려 보았지만 누구 하나 돋보이는 것같이 없었다. 거리의 풍경은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이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흰칠한 키, 깨끗하고 흰 얼굴, 금발의 러시아인들 앞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같은 느낌이다. 여인들은 거의가 핑크 한 벌씩은 몸에 걸쳤고, 높고 우아한 모자는 그들을 돋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가난했고 그들의 생활은 어둠으로 짙어 있었다. 진열장 속의 마네킹용으로는 적당할지 모르나 생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어째서
이뤄지지 않았는지
말해 달라는
어느 여학생은
강의가 끝나
복도로 나오는
내 팔목을 붙잡고
계속 질문을 한다.

여인들은 거의가
밍크 한 벌씩은
몸에 걸쳤고
높고 우아한 모자는
그들을
돌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가난했고
그들의 생활은
어둠으로
꽂 차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예배 모습은
거리의 풍경과는 달리
기쁨으로 가득 찼다.

명을 가진 인간으로는 거의 폐품이 되다시피한 이 황폐한 영혼을 살릴 길이 무엇일까?

오전 10시 러시아 선교신학교에 가서 첫 번 강의에 들어갔다. 학생 수는 불과 15명이었지만 이들은 러시아를 구원할 사명자들이다. 두시간 동안 통역을 통한 “성경적 사회론”강의를 했다. 신학적 기초가 없는 탓도 있었으나 신학용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같아 안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계속 더 듣고 싶다고 했다. 강의 후 우리는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시간은 우리를 몰아내고 말았다.

오후 2시부터 국제환경정치대학에서 특강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마침 한국을 방문했던 러시아선교합창단이 우리와 동행해 주었다. 천사의 노래처럼 맑고 아름다운 찬양은 대학생들의 마음 문을 열기에 충분했다. 한시간 동안 “오늘의 위기와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가진 후 질문시간도 가졌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면 어째서 공산당원들에게 잡혀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아들은 죽어야했는지 말해 달라는 어느 여학생은 강의가 끝나 복도로 나오는 내 팔목을 붙잡고 계속 질문을 한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이 영혼들을 위해 토론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대학의 책임자들은 또 다른 회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린다.

어제 밤 토의하던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것이다. 학생은 15명 정도로 받되, 한국의 어느 대학이나 연구소와 연결을 시켜 안수까지 받게 해서 군목으로 파송할 수 있다고 고까지 한다. 한국 군복음화 후원회(사무총장: 문은식 목사)와 예장 군선교부(총무: 온태원 목사)의 도움으로 이들은 이미 군목제도 창설을 위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 놓고 그것을 연구 검토했다고 한다. 김바울 목사님의 헌신적 노력과 추진력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당신이 싸인만 하면 끝난다고 서두르는 모습이다. 동행한 박철훈, 오정수 두 분 장로님들과 우리만 아는 한국말로 잠시 협의의 거쳐 일의 중요성에 반해 우리 측의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제안할 사항이 있음을 말하고 회의를 마쳤다.

우리는 저녁 6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러시아 선교교회 집회시간에 맞추기 위해 숨돌릴 겨를도 없

이 그곳을 떠났다. 강당을 가득 메운 예배 모습은 거리 풍경과는 달리 기쁨으로 가득 찼다. 설교를 듣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림던 엄마를 다시 만난 아이처럼 한 말씀 한 동작도 놓치지 않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치마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듯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고려인 황명순씨의 통역으로 박철훈 장로님이 인도를 하고 오정수 장로님은 무거운 카메라를 메고 순간 포착에 동분서주하는 동안에 “아멘”의 연발을 터뜨리던 필자의 설교도 벌써 끝이 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설교가 끝나자마자 청중의 1/3이 자리를 떠나 출입구를 향해 줄을 서지 않는가. 교회에 오면 의례히 빵을 나누어 주고 선물을 받던 습관이 있어 모자랄 경우엔 받지 못할까봐 일찌기 줄을 선 것이다. 평소보다 더 많은 수가 참여한 것을 안 그들로서는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까봐 불안했던 것이다. 사회자의 광고도 소용이 없다. 한 장의 주보를 얻기 위해 아우성을 쳐야하고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면 체면도 없다. 우리가 준비해 간 작은 볼펜은 그들에게 큰 선물이었다. 더욱 놀란 것은 성경통신 공과를 주일마다하고 있는데 그 문답지 구하기조차 어려워 예배시간 한시간 전에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그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기도했다.

그날 밤 저녁을 먹게 된 것은 밤 10시가 넘어서였다. 한국으로는 새벽 4시다. 육신이 놀라는 것같다.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같아서 조금 염려했지만 출발 전 몸살을 앓았다신 박장로님도 오히려 건강해졌고 오장로님은 여전히 잘 잠수신다. 기쁨과 감사와 보람으로 가득 찬 하루였다. 눈 오는 길을 미끄러지듯 달려와 호텔에 도착한 시간



은 11시가 지나서였다.

12월 16일(수)

오늘도 계속 눈이 내린다. 케이 지 비(KGB) 병원에서 전도집회가 있지만 약속시간이 조금 남아 잠시 붉은 광장을 찾았다. 유명한 바실성당 그리고 크레믈린 궁전, 레닌 박물관 등에 둘러싸인 광장에서 눈비를 맞으며 몇 장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족했다. 시간은 다시 우리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보내온 팩스를 보면서 우리는 깜짝 놀랐다. 영화 9도(?). 보고서를 전해 준 김인숙 집사의 표현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열기로 한파가 쫓기어 서울로 몰려 온 것 같다고 했다. 우리 일행은 한참 웃었다. 케이 지 비 병원은 모스크바 근교에 있다. 혁명 전에 지어진 고풍의 러시아 민가를 바라보면서 넓게 펼쳐진 대지와 맑은 공기를 음미해 본다. 병원장의 안내로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이 기다리는 강당으로 들어갔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며 환영을 해 준다. "환난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의 메시지를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다.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가 일어섰다.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저녁에 또 다른 회의 약속이 있어 눈 내리는 길을 버스로 질주동행가는 길에 동행한 선교합창단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동안 어느덧 피곤은 사라져갔다.

이반스 이바노스키 장군 일행 8명은 우리를 영접키 위



설교를 듣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그립던 엄마를
다시 만난
어린 아이처럼
한 말씀 한 동작도
놓치지 않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치마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듯 안타까운
모습이었다.

한 장의 주보를
얻기 위해
아우성을 쳐야하고
성경통신 공과의
문답지는 구하기조차
어려워 예배시작
한시간 전에 교회에
온다는 것이다.

그들의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기도했다.

해 준비된 장소에 벌써 나와 있었다. 한국을 방문한 바 있는 보리스 장군은 회의 차 해외에 나가 있어 그 부인이 대신 참여했다. 우리는 두 시간이 넘도록 군인들에게 복음의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나는 한국의 분단 현실을 말하면서 러시아의 협력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 매우 이해적이기는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 치고는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된 느낌이다. 김바울 목사의 사교성에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오는 5월 이반스 장군과 보리스 장군이 한국을 방문케 될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 계속 눈은 내리지만 날씨는 아직도 포근하다. 러시아 군대 내에 군복제도 창설은 아직도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루실 줄 믿는다. 그들의 우려는 대개 다음과 같이 집약되었다. '러시아 정교회를 비롯한 유대교, 모슬렘과 같은 종교가 상존하고 있는 다원 종교사회에서 어떻게 개신교 군복목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자책 있는 군복을 어떻게 배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 군복제도 창설의 역사와 그 운영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한국군 내에 개신교 군복, 카톨릭 신부, 심지어 불교의 군승까지 있으나 전군 신자화(全軍 信者化)전략에 도움을 주고 있을 뿐 커다란 갈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전군 신자화라는 말에 그들은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아 보였다.

차브르 코브 대령은 국방대학원 교수로서 군대 외국관계 전사 편찬 책임자다. 그는 한국전 때 납북되거나 러시아로 끌려 간 한국의 종교지도자에 대한 기록을 자기들의 자료실에서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해 주었다. 이 문제는 예정 선교사 이형근 목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날 밤 우리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환담했다.

12월 16일(목)

우리 일행에게는 어느 날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서울장로교회가 1994년도에 시행할 제5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에 참여할 분들을 선발하기 위해 교계 지도자들과 협의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오전 8시에는 모스크바 주재 예장 선교사 네 분을 만났다. 그곳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케 된 것이다. 그들에게 몇 분씩 추천





제5차 김치세미나의
참석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에는
장로교회가 없다.
개신교는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
감리교회가 있으나
그 세력은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이들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전역에서
보다 영향력있는 지도자가
추천될 것이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다.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음이 역력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
그들은
경이로운 눈초리로
경청했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배분함으로 선교사로서는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한 것이다. 9시 30분부터는 그곳 개신교 협의회 고려인 책임자인 강선생을 만났다. 그는 러시아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이 일을 돕겠다고 자원해 주었다. 서울을 떠나 오기 전 내가 편지로 만나기를 요청한 페트로부우는 지하교회 대표자다. 그의 도움으로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스크바 침례회 총회장을 면담했다. 그는 러시아 전체 침례교회 목사 중 지도급 인사들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감스럽게도 러시아에는 장로교회가 없다. 개신교는 침례교, 오순절, 감리교회가 있으나 그 세력은 매우 미약하다. 그러나 이들의 협력을 통해 러시아 전역에서 보다 영향력있는 지도자들이 추천될 것이다.

오후에는 눈 내리는 거리를 질주하여 교외로 약 1시간 떨어져 있는 어느 성도의 가정에서 초대를 받아갔다. 오후 1시에 간다는 것이 회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4시가 되어서야 도착했다. 러시아인의 가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가난했다. 방 두개가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그것도 거주의 자유가 없어 배정받아 살아왔던 집이란 다. 그날 밤, 러시아 서커스단 공연장에 안내되어 원숭이를 방불케하는 묘기를 보았지만 엄청나게 밀려 오는 피곤 때문에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12월 17일(금)

오전에는 러시아 국방대학원을 방문했다. 모스크바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근교에 있는 부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날씨 탓이었는지 좀 음산한 느낌을 가졌다. 원장 되시는 보리스 장군 방에서 잠시 대기한 후 곧바로 강의실로 안내되었다. 주로 영관급 장교들이 줄을 지어 앉았다가 기립하여 예를 표한다. 나는 소개를 받은 후 "지도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다행히 통역이 염려되어 전날 원고를 미리 주었던 관계로 그날의 통역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다. 공산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음이 역력했다.



→ 올해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군목 1호가 되겠다고
무릎 꿇고 기도를 받은
구즈네프스 장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 그들은 경이로운 눈초리로 경청했다. 간단한 점심대접을 받고 우리는 비행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급히 빠져나와야 했다.

온 종일 해를 볼 수 없는 러시아의 날씨 탓인지 모두가 화가 난 인상이다. 비행장으로 나오는 차 안에서 눈으로 덮힌 나무 위의 눈 꽃을 보면서 감탄사를 몇번씩 발해 보기도 하였다. 비행기는 눈으로 인해 4시간 연발되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도 선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밀린 잠이나 실컷 자기로 했다. 눈을 뜬 것은 서울이 가까왔으니 내릴 준비를 하라는 기내방송이 흘러 나올 때였다. 10시간 가깝도록 잠을 자고 난 후라 잠을 깨려고 기내 화장실에 가서 얼굴에 물을 묻히는 순간, 입술이 부르터오르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으니 감사할 뿐이다. 공항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나와 주신 분들과 반갑게 악수를 나눌 때에야 비로소 잠에서 깨어나 아침을 맞는 느낌이 있었다. 할렐루야!



↑ 모스크바 환경정치대학에서 기독교연구센터 설립문제를 의논하다.



↑ 러시아 국방대학원에서 이 목사의 강의 후 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 신학교에서의 강의

▶ 졸업생을 보내며

내 꿈과 사랑이 된 친구들...

황 낙 효
(중등부 교사)

10년째 교사 생활을 해 왔지만 올해 첫 주, 원래 1학년 담임을 원했던 내가 3학년인 너희들을 만났을 때, 더군다나 잘 토라지곤 하는 여학생 심리에 쉽게 당황하는 남자인 내가 너희들 담임이 되었을 때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실제 인원은 애초에 받은 명단의 반도 못된 채 여러 주 시간만 흘러 결국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었지. 그 후로도 주님은 너희들을 통해 내 영적인 상태를 붙들어 주시고, 책망도 하시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 주셨다. 교사로서 모범이 되어야겠기에 요절을 먼저 암송하고 프린트해서 나누어 주려고 영어로 요절을 찾아 보기도 하고 한 주간 은혜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내게 더 깊은 깨달음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어느 새 너희들은 내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애뜻하게만 느껴지고 늘 궁금하고 만날 때면 항상 반갑고 기뻐하기만 하다. 우리 중에는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도 생겼고 외교관이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는 친구도 있다. 굳이 말은 안했지만 예술가가 되겠다는 친구도 미스 코리아 후보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너희들의 눈동자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처음엔 어린 아이 같지만 하더니 서로의 관심을 나누고 진정한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진 너희 모습은 이제 어엿한 숙녀가 다 된 것 같다. 얼마 전, 특별전형을 하는 고등학교가 주일에 시험을 치른다고 실력이 있는데도 시험을 과감히 포기한 친구를 보며 그 용기와 믿음에 교사인 내가 오히려 도전을 받았다. 내 소중한 사랑이요 꿈인 너희들, 이제 고등부에 가면 또 어느 선생님의 꿈과 사랑이 되겠지. 잘가라,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언제나처럼 사랑스럽고 멋진 제자가 되거라!

잘 돌봐 주십시오, 고등부 선생님! 제가 친구들을 아꼈던 것처럼...

▶ 졸업하며

말괄량이었던 제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 양 언
(초등부 졸업생)

작년 여름수련회 때 선생님을 물에 빠뜨린 일이 제일 신나는 기억이에요. 말괄량이 짓만하고 예배시간에도 떠들고 장난쳐서 선생님 속상하셨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저더러 많이 변했다고 하세요. 제가 생각해 봐도 많이 얌전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언젠가 모든 일을 하기 전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실까를 잘 생각해 보라셨지요? 거친 말과 남의 흉 보는 말을 잘하던 나는 어느 날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가슴이 아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운 말과 남을 칭찬하는 말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전에는 즐겁게 들려서 흥얼거리던 세상의 노래들보다 복음성과 찬송이 마음에 더 좋아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다 나같은 마음인가봐요. 교회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과 달라서 뭐든지 양보하고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도와줘요. 그래서 교회오는 것이 항상 즐거워요. 이 모든 것이 다 선생님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저는 되고 싶은 것이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과학자인데요, 다른 과목보다 자연이 재미있고 오빠들의 책을 봐도 항상 과학책에 호기심이 가요. 선생님께서 자기가 마음으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지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사랑부 교사가 되는 것이예요.

선생님과 헤어져 이제 중등부에 가게 되면 언니들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요. 그렇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성경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지난 한 해, 교회를 바꾼 힘

각양의 모습으로 그러나 한마음으로

이 성 철(청년회 회장)

지난 5월, 청년부의 시작은 매우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위해' 그리고 '주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 정진하는 교회에 몸담은 청년의 미래는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청년의 눈에 비친 교회의 어른들을 마치 모두들 봉사만 하는 분들 같았습니다. 회사에 가면 점잖은 자리에 앉으실 집사님께서도 주자장에서, 안내석에서, 헌금위원으로 봉사를 하시고 보이지 않게 청소하시는 분들 덕분에 좁지만 항상 깨끗한 예배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년의 힘으로 해야 할 교회의 굵은 일은 무엇이든 달려가 하자고 결의하였습니다.

얼마 전 주관한 '모음과 나눔의 장'을 통해 우리 청년들은 다시금 두 해를 지켜 온 우리 교회의 저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극히 단순한 동기로 모으기 시작한 재활용품이 모두의 힘을 합칠 때, 개장 전 삼일을 꼬박 정리해야 할 만큼 쌓였고, 여름수련회 캠프화이어 때 썼었던 앵글을 재조립해서 만든 옷걸이에는 수백벌의 옷이 걸렸습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참여해 주신 수많은 성도들. 기뻐어쩔 줄 모르시며 손수 국밥이랑 호박죽을 끓여 주신 권사님들. 젊은

이들이 뭔가를 한다는데 밀어주자시며 굵은 일 마다얹으신 전도회 집사님들. 주야로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형님들 돕자며 자기들끼리 권유하여 소리없이 움직여 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동생들... 덕분에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진 교회잔치를 치를 수 있었고, 믿지 않는 이웃들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연스레 교회문을 밝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은사를 따른 각양의 모습으로, 그러나 한 마음으로 섬기던 그 힘이 바로 그간 굵직한 일들을 거뜬히 해낸 두살박이 교회의 잠재력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를 향도할 사명받은 교회의 책임을 완수케 할 기반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는 맘으로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들을 위한 배려였음에 「서울 청년」은 벅찬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로 다져진 든든한 교회에서 보고 배운대로 저희도 교회의 힘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래할 21세기를 환상 가운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교회의 뜨거운 사랑 속에 담긴 청년을 향한 기대를 가슴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